

농축산농가 안정화 대책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님,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님,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님,
정세균 민주당 대표님,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님께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면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곡물 가격과 국제 원재료 값 상승으로 인한 사료가격과 화학비료 가격의 급등 그리고 국제유가의 폭등으로 농어민의 고통과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업용 면세유는 2012년 말까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각종 세금이 면제되어 공급됨으로써 농어민의 생산성 증대와 소득증대에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휘발유 등 각종 유류가 작년에 비해 최대 90%가 인상되어 시설농가들의 경영난이 가중되어 도산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곡물수요의 증가와 호주의 작황 부진으로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이로 인해 사료비의 인상은 미국산 쇠고기 여파와 더불어 축산농가의 경영난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2~3년간 화학비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농산물 가격의 상승이 예상되는 등 우리의 농어민들은 생업을 포기할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의원 모두는 농축산 농가가 겪어야 할 어려움에 우려를 금치 못하며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제도의 시행과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의 확대,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중앙정부의 현실적 정책제시 그리고 비료 판매가격 차손보전제도 부활을 통한 농어민들의 근본적인 안정화 대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충청북도의회는 중앙정부와 국회에 임시
방편적인 농어민 지원 대책 보다는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을 수립할 것을 당부 드리며 특히
다음 사항을 건의 드립니다.

하나,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제도를
시행하고 공급대상을 확대해 주십시오.

하나, 2005년 폐지된 화학비료 판매가격 차손보전
제도를 즉각 부활하여 비료값을 안정시켜
주십시오.

하나, 사료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근본
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십시오.

2008년 7월 21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